



재보험자 기대손실(ERD) – 재보험계약 보험위험전가에 대한 평가

김소연 연구위원

요약

■ 2012년 10월 발표된 「재보험관리 모범규준」에서는 손해보험상품의 재보험계약에 대한 보험위험전가 여부의 평가 방법으로 재보험자 기대손실(ERD: Expected Reinsurer Deficit)이 1% 이상일 것을 제시함. ERD는 위험(Risk)을 빈도와 심도의 곱으로 정의하고 이를 재보험료 기대치로 나눈 값임. ERD는 기존의 위험 측정법(Risk Measure)인 VaR나 TVaR과 비교하여, 리스크를 규정하는 기준이 통계적인 백분위수가 아니라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지점을 고려한다는 점, 심도와 빈도를 동시에 고려한다는 점으로 인해 더 나은 리스크 측정법(Risk Measure)으로 평가되고 있음. ERD의 재보험계약 보험위험전가 평가기준은 적정 수준에 대한 고민을 통해 조정될 수 있는 수치인만큼 적정 수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2012년 10월 발표된 「재보험관리 모범규준」에서는 손해보험상품의 재보험계약에 대한 보험위험전가 여부의 평가 방법으로 재보험자 기대손실(ERD: Expected Reinsurer Deficit)을 제시함.

- 「재보험관리 모범규준」의 제정 취지는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능력을 제고하고 건전한 재보험거래를 유도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재보험계약을 관리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권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임.
- ERD가 1% 이상인 재보험계약인 경우 보험위험의 전가가 있는 것으로 평가됨.
 - ERD는 위험(Risk)을 빈도와 심도의 곱으로 정의

$$ERD = pTP$$

p = 재보험자에게 손실이 발생할 확률 (즉, 빈도)

T = 손실발생 시의 평균 심도의 현재가치

P = 기대 재보험료의 현재가치

- 예를 들어, 원수보험사의 50억 이상의 손해에 대해 25억까지 보상하는 재보험계약의 재보험료가 1억이라고 가정하고, 재보험사의 손해액 분포가 <표 1>과 같다고 하면 ERD는 44%로 계산(모든 보험금 지급은 보험계약 종료시점인 1년 뒤에 이루어진다고 가정, 할인율 4% 가정)

<표 1> 재보험사의 손해액 분포

손해액 (단위: 억)	확률	순이익(손실)현재가 (단위: 억)
0	96%	1
5	2%	3.8
15	1%	13.4
25	1%	23.0
기대값	0.5	

- $p = 2\% + 1\% + 1\% = 4\%$, $T = (3.8 \times 2\% + 13.4 \times 1\% + 23.0 \times 1\%) / 4\% = 11.0$ 억
- $ERD = pT / P = 4\% \times 11.0 / 1 = 44\%$

- ERD는 기존의 VaR나 TVaR과 비교하여 리스크를 규정하는 기준이 통계적인 백분위수가 아니라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지점을 고려한다는 점, 심도와 빈도를 동시에 고려한다는 점으로 인해 더 나은 리스크 측정법(Risk Measure)으로 평가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재보험계약의 보험위험전가 여부에 대한 평가로 ERD가 소개되기 전까지 '10-10 VaR' 테스트를 사용해 왔으나 ERD의 사용을 권장
 - '10-10 VaR' 테스트는 10% 이상의 순손실이 10% 이상의 빈도로 발생할 때 보험위험전가가 있는 것으로 판단
 - 이는 ERD 1%(=10%×10%)로 환산되기는 하지만, 위 예시의 경우와 같이 빈도가 낮고 심도가 높은 경우(대형재난을 보상하는 재보험)에는 ERD가 44%이더라도 보험위험전가가 없다고 평가함.
 - 또는 반대로 심도가 낮고 빈도가 높은 경우(일부 비례재보험)에도 같은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 ERD의 T는 재보험계약 전체 상의 손실 또는 이익이 0(breakeven)일 때의 TVaR값임.
 - 예시를 통해 설명하면, 재보험계약 전체 상의 손실이 일어나는 지점(breakeven point)은 96%

이상의 지점이고 TVaR(96%) = 11.0억임.

- 하지만 일반적인 TVaR은 ERD의 T에서와 같이 경제적 손실이 일어나는 지점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고정된 백분위수(예컨대 90% 또는 95%)를 정하고 그때의 심도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적 손실에 대한 확률을 고려하지 않는 단점이 있다고 평가되고 있음.

■ ERD의 재보험계약 보험위험전가 평가 기준은 적정 수준에 대한 고민을 통해 조정될 수 있는 수치인만큼 적정 수준에 대한 고민이 필요

- 미국의 경우 ERD 1%가 재보험계약이 보험위험을 전가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널리 사용하고 있지만, ERD 외에 다른 평가방법이 있는지, 기준치 1%에 대한 의견은 어떤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음.

■ 보험회사는 ERD를 통해 재보험계약을 통한 리스크전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리스크관리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 2012년 10월 모범규준 제정 이후에도 국내에서는 이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준비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음. [kiri](#)